



2015년 개강을 준비하는 **낙농마이스터대학**

이수자에게는 국가지원자금 우선 지원과 장관 명의 수료증 수여!

최고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을 육성하는 낙농마이스터대학이 내년부터 신설돼 개강을 준비하고 있어 낙농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5년도 부터 한경대학교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과 충남대학교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낙농전공과정이 신설되면서 낙농인들도 전문경영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열렸다.

2년 동안 이뤄지는 낙농과정은 수강생 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실습형 현장중심 기술·경영교육과정으로 편성된다.

특히 낙농과정은 국비 50%, 지자체(경기

도, 충청남도) 20% 지원 혜택이 부여되므로 교육생은 실제 30%의 자부담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우나 양돈과는 달리 착유시간을 고려한 수업 시간의 구성으로 목장운영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특징이 있다. 낙농과정을 졸업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농업인 우대 정책에 따라 국가자금지원에 대해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시험을 통해 낙농마이스터로 지정되면 후계농 지도와 농어업경영컨설팅 컨설팅턴트, 현장교수 등의 자격이 부여돼 낙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거듭나게 된다.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탄탄한 낙농 기반 구축하자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의 낙농과정은 축산학으로 특화된 천안연암대학 캠퍼스에서 한우, 양돈, 양계와 함께 2015년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착유 등 목장운영에 차질 없게 운영

낙농과정을 개설할 때 가장 비중 있게 고려한 것은 젖소의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 이외에도 농가들의 착유시간을 감안했다는 점이다. 천안연암대학 심금섭 학과장은 “오후 착유를 하려면 4시까지는 목장에 가야하는데 한우나 양돈 수업과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수업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3주에 한 번은 일주일에 두 번 수강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제 교육생을 모집하면 오후 수업이 부담스러워 수강을 꺼리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했기 때문에 착유시간에 개의치 말고 자유롭게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천안연암대학에서는 과거 농

업마이스터과정을 6년(1기는 4년, 2기는 2년)동안 운영해 본 결과, 낙농과정도 기존의 축산과정과 마찬가지로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경험을 가진 낙농가들이 공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강생들이 수업을 통해 낙농의 기초를 확립해 가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을 계획이다.

심 교수는 “현업에 종사 중인 축산인이라도 기초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특강위주 교육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기초가 없고 기본적인 용어를 잘 모르다보니 수업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도 실



제 농장에 접목을 주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낙농과정이라고 강조한다. 마이스터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교와 똑같이 15주를 4학기 동안 진행하는데 대부분 '내가 10~20년 축산을 했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을 배우러 왔나'라는 불만을 가지다가도 체계적인 수업을 통해 잘못 알고 있던 지식은 바로잡고 학업에 가속도가 붙어 응용력도 생겨나게 된다고 한다.

단순 강의식 교육 아닌, 현장중심 전문강사 교육을 통해 문제 해결식 교육을 지향

낙농과정의 장점 중 하나는 수강생 간의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충남 지역에서 다양한 동종업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각 지역의 낙농 문제를 이야기

천안 연암대학 심금섭 학과장



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서 교육생간의 정보교류의 장이 될 뿐 아니라, 40~50대 이상 동일직종을 가진 수강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에서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활동이 되고 있으며, 농장견학과 실습을 통해 지식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낙농2세들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연암대학은 축산 특화 대학답게 낙농마이스터교육을 받는데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학교 주변에 사료작물포는 물론, 사료 배합기, TMR, 착유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다. 체계적으로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20~30년 경력의 직원들이 목장을 운영하는데, 실습 교육을 할 때 현장에서 강사역할을 한다. 특히, 대학 강사 외에도 현장 실무에 능한 전문가를 채택해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강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 낙농의 새로운 물결,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은 한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진과 외부 강사가 하나가 되어 지난 6년 동안 한우, 양돈 과정 마이스터대학을 운영해왔으며 낙농가들을 위해 내년부터는 낙농분야를 신설했다.

이론으로 무장한 후 현장중심 교육 실시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은 기존 대학의 학부생처럼 이론에 중점을 둔 실습시스템이 아닌 현장중심적 실무교육을 우선시 하고 있다.

한경대학교 남기웅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은 “실제 마이스터 수업에 참여하는 사

람들은 실무 경험이 10여년 이상 되어야 입학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낙농분야에서 상당한 실무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는 이론 무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론 무장과 함께 실무를 토대로 이론과 기술을 모두 익혀 다시 제3자 낙농가에게 교육할 수 있는 교관교육까지 겸하고 있다고 한다.

남기웅 학장은 여기에만 돈 버는 경영까지 가르친다는 것이 마이스터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아무리 이론과 실무에 능통해도 경영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영 수업을 한다는 것. 남 학장은 “결국 현장중심의 이론교육과 경영 및 낙농리더로서 교관 교육까지 시켜 학생을 배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은 2015년 낙농과목 개강을 대비해 새로운 강의실과 실습시설을 마련했다. 목장도 신축하고 최신 설비

를 들여와 최적의 교육 여건으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것. 수



한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남기웅 학장(左)과
동물생명환경과학부 남기택 교수(右)



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15주에 걸쳐 실습 40%, 이론 60%의 비율로 진행되며, 2년 동안 담임 제도를 두어 상담도 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 학생들을 관리한다. 아울러 주임 교수의 지도 하에 낙농선진국을 섭외해 해외현장실습 수업을 실시할 뿐 아니라, 교육 및 토론, 보고서 작성까지 시스템이 정착되어 낙농과정도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낙농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유능한 강사 선정할 것

낙농과정 개강을 준비하고 있는 남기웅 학장과 남기택 교수는 아직도 어떤 과목이 수강생들에게 가장 유용할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기본적인 과목은 교수들이 정하지만 수강생들이 별도의 요청을 해 온다면 선택적으로 과목을 채택할 계획이다. 한경대학교의 특성상 30% 이상을 학교 강사로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강사 선정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남 학장은 “실제 강사를 선정할 때 농장에 가서 이론과 실습을 다 보여주며 강의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과목당 2명 이상의 전문가를 선정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 한다”며 “수

강생들은 낙농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그간 궁금했던 것을 물어 보기 때문에 교수가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강사 선정도 고심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말했다.

남기웅 학장과 남기택 교수는 경기북부 지역민들이 지리적 여건과 착유 문제로 수강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경기 북부에 강의실을 마련해 직접 찾아가서 강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낙농 마이스터과정을 위해 지역 캠퍼스를 만들거나 낙농 단체와 MOU를 맺어 체계적으로 교육을 주도하고, 특정지역에 수요가 많으면 직접 찾아가는 것이 낙농가와 우리가 함께 상생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

